

LG그룹, 혁신경영 잘 안되나...

구분무 회장, 최선 다해달라 주문 ... LG화학 김반석 부회장도 참석

구분무 LG그룹] 회장이 또 혁신경영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.

LG에 따르면, 구분무 회장은 5월31일부터 2일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<LG 혁신한마당>에 참석해 “늘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고객가치를 차별화하고 시장 선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”며 “사업의 모든 순간에서 지금까지의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



이어 “LG의 모든 구성원이 고객가치 창출에 몰입해 즐겁게 일할 때 가능하다”며 “직원 모두가 혁신의 주역이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혁신한마당 행사에는 구분무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부회장, 구분준 LG전자 부회장, 김반석 LG화학 부회장,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LG 최고 경영

진 및 임직원 1300명이 참석했다.

<차별적 고객가치로 미래를 열어가는 LG>를 주제로 진행된 혁신한마당 행사에서는 동남아시아에 특화된 홈씨어터를 출시한 LG전자와 발효화장품 숨을 내놓은 LG생활건강 등 15개 팀의 혁신사례가 발표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6/03>